

#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언제 문 여나

지난해 준공 10개월째 개원 못해  
대한체육회 전·현 회장 내부 갈등  
전남도·장흥군 11월 개원 요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준공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못 한 채 방치되고 있어 체육지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총 471억원을 들여 1만 6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체육인재개발원은 교육동(4층), 숙박동(2인 1실/100실), 다목적체육관(2층), 종합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전국 유일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장흥군이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에 공모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확정된 후 4년여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22년 말 착공해 지난해 12월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했다.

현재 건물 내부에 체육지도자 교육을 위한 컴퓨터 전자장비, 집기 등 행정장비와 운동기구도 꾸려 개원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같이 개원이 늦어진 데는 전 체육회장과 현 체육회장과의 미묘한 내부적 갈등 이유로 기관운영비, 강사비, 시설운영비 등 총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민생 관련



장흥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동지를 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전경.

예산 현 정부 예산기조 정책에 맞물려 추경예산에도 빠져 있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전국 유일한 체육인재개발원이라는 점에서 체육 분야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유발효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준공 이전부터 문화관광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원요청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성장

흥군수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11월 말까지 개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흥군은 체육인재개발원이 개원하면 연간 11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체육지도자(선수과 코치·감독)가 이곳에서 체육 전문교육을 받아 체육인재 요람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광양 구봉산에 관광단지 들어선다...민자 3700억 투입

전남도 지정·조성계획 승인

콘도 220실·골프장 등 조성

광양시가 지난달 30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남도지사로부터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LF리조트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양항 배후 지역인 황금동·황길동 일원 207만2623㎡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입해 ▲콘도미니엄 220실 ▲대중형 골프장 27홀 ▲휴양문화시설 13종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광양읍에 개장한 'LF스퀘어'의 지역협력사업으로 출발했으며, 2019년 4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신청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제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보존산지 변경지정 및 산지구역 지정 협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승인은 2023년 6월 승인 신청서 제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광양시는 사업 초기부터 민간 투자자,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LF스퀘어 광양점'을 운영하는 (주)LF네트웍스는 관광단지 조성을 전담하기 위해 현지법인



광양시가 지난 30일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승인 받았다.

(주)LF리조트를 설립하고, 대규모 자금을 꾸준히 투자해 왔다. 광양시 또한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토지 매입 대행, 진입도로 개설, 투자 애로사항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와 원팀으로 협력해 왔다.

(주)LF리조트는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허가(개발행위허가 등)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은 광양시 역점시

책인 '구봉산권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도 큰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봉산권 3대 핵심 관광사업 중 '어린이 테마파크'와 포스코의 '구봉산 정상 체험형 조형물'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최초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15만 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며 "LF광양스퀘어의 지역협력사업으로 출발한 이번 사업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목포상의 '기업재생에너지 지원' 거점센터 지정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목포상공회의소가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역거점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라남도 서남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목포상공회의소는 향후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위한 기술적·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목포상공회의소에서는 10월부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재생에너지 컨설팅 제공은 물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 탈탄소시대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전환으로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순천청년친화도시추진단이 지난 25일 청년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순천 청년친화도시추진단 36명 구성 출범

순천형 청년정책 발굴·전략 제시

순천시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순천청년친화도시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지난 25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며, 국무조정실이 지정한다. 지정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등 행정·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36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지 운영된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기회의와 청년친화도시 지정방향 3대 전략(지역맞춤, 청년참여, 확산거점)에 맞춰 차별화된 순천시 청년친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추진단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추진단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청년친화 정책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뜻깊다"며 "청년 주도적 참여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순천 조성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장성군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 선정

국비 21억 확보...지역 시스템 설치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 공모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향후 삼계면 함동저수지 인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땅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

성군이 지난해 선정된 391억 원 규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구축되는 농업 시설이다.

장성군은 레몬, 아열대 채소 재배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의 성장과 단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외에도 내륙지방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실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도 삼계면에 건립 중이다.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